

이상동기 살인사건에서 경부 예기 손상의 법의학적·해부학적 사례 분석

이근태¹

¹대전대학교 임상병리학과

Forensic and Anatomical Case Analysis of Cervical Sharp-Force Injuries in an Abnormal Motive Homicide

Geuntae Lee¹

¹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College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Daejeon University

Abstract : Abnormal motive homicide refers to a killing driven by irrational, non-goal-directed motives that deviate from social and ethical norms. This report presents a rare case of abnormal motive homicide in Korea, detailing the medico-legal and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fatal cervical sharp-force injuries. A 60-year-old woman was found lying supine on a mountain trail with multiple sharp-force wounds. Bloodstain pattern analysis demonstrated extensive pooling and transfer patterns consistent with on-site exsanguination without any post-injury displacement of the body. External examination revealed numerous incised and stab wounds concentrated in the anterior and lateral cervical regions, along with defensive injuries on the left hand. Autopsy identified extensive sharp-force trauma, including complete transection of the trachea and esophagus and bilateral lacerations of the carotid and jugular vessels, confirming death by exsanguination due to catastrophic cervical injury. Judicial records revealed that the perpetrator had previously served 15 years for robbery-murder and reoffended four months after release amid untreated paranoid schizophrenia, alcohol dependence, and severe social isolation. The absence of any prior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s disorganized, non-instrumental attack pattern substantiate the classification of this case as an abnormal motive homicide. This case underscores the medico-legal significance of sharp-force injuries involving major cervical structures and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multifaceted preventive strategies, including improved mental health care, enhanced community monitoring systems, and strengthened recidivism-prevention programs.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tegrating psychological, social, and neurobiological perspectives is further recommended to support evidence-based crime-prevention and public-safety policies.

Keywords : Abnormal motive homicide, Bloodstain pattern analysis, Cervical sharp-force injury, Death scene investigation, Forensic medicine

이 논문은 2025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October 16, 2025; **Revised:** December 9, 2025;

Accepted: December 15, 2025

Correspondence to: 이근태 (대전대학교 임상병리학과)

E-mail: gtlee@dju.kr

서론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심리학적·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이 중 살인은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학술적 이해는 법의

학 및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abnormal motive crime)는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비이성적·불분명한 동기에 의해 발생하며, 범행의 과정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고 사회적 불안을 증대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이상동기 범죄는 전통적 살인의 대표적 동기인 금전적 이득, 보복, 관계 갈등 등과 달리 합리적 설명이 어려운 동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 관계가 없거나 범행의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무작위 흉기 공격, 문지마 범죄, 충동적 폭력, 정신질환과 연계된 공격 행동 등이 주요 하위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1,2]. 해외에서는 일본 아키히바라 무차별 살인사건(2008)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도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2016), 진주 아파트 흉기 난동(2019),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2023) 등 피해자 비선택성과 동기 불명확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양상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측 불가능성과 치명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처럼 피해자와 무관한 무작위 공격 형태의 이상동기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치안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사건은 기존의 관계 기반 살인과 달리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며, 범행 전후의 과정 또한 비합리적·비일상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법의학·사회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의 정신질환, 사회·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고립, 충동 조절 장애 등 복합적 위험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 검시 및 부검, 법원 판결 기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의학·해부학적 특징과 사회적 배경을 함께 조명한 사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해자와 무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흉기 공격이 이루어진 1례의 이상동기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사망 현장 조사, 검시 및 부검 소견, 법원 판결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발생 과정과 법의학·해부학적 특징을 규명하고, 이상동기 범죄가 지니는 구조적 위험 요인과 사회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사례 연구는 법의학적 관점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이해를 확장하고,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다학제적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본 증례에 포함된 현장 조사, 검시 및 부검 관련 정보는 공

식 기록과 저자의 직접 관찰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범죄 현장 수사’ 및 ‘법의학적 현장 검시’ 항목의 내용은 경찰 과학수사의 현장감식보고서와 검시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저자가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둘째, ‘부검 소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부검감정서를 근거로 기술하였다. 셋째, ‘범인의 과거력 및 법원 판결’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문(2017도2188)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 범죄 현장 수사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 수년간 새벽에 주거지 인근의 낮은 산을 단독 등산하던 중 등산로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최초 신고자는 등산객이었으며, 현장 도착 시 피해자는 등산복 상·하의, 등산화, 등산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고 왼손에는 등산지팡이를 쥐고 있었으며, 오른손의 지팡이는 인근에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고, 얼굴과 상의 부위에서 다량의 혈흔이 확인되었으며, 목과 복부에 예기에 의한 다수의 절창 및 자창이 관찰되었다(Fig. 1). 주변 수색에서는 범행 도구나 범인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 형태 분석(bloodstain pattern analysis)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팀의 과학수사요원과 검시조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장 사진과 시신 주변의 혈흔 분포도를 기반으로 혈액 고임 패턴(pool patterns), 전이혈흔(transfer bloodstains, including wipe patterns), 낙하혈흔(drop stains), 방향성(directionality) 등 주요 혈흔 형태학적 지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뒤통



Fig. 1. Death scene. The victim was found lying supine on a mountain trail, wearing hiking attire. A large amount of blood was present on the face and the adjacent ground, and multiple sharp-force injuries, including stab and incised wounds, were observed in the cervical and abdominal regions. The bloodstain distribution pattern indicated death by exsanguination at the scene, with no evidence of post-injury displacement of the body.

수 및 등 부위로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혈액 고임 패턴과 광범위한 전이혈흔이 확인되었으며, 혈흔의 크기, 형상, 분포 및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태학적 재구성을 통해 피해자가 최초 발견된 자세에서 이동 없이 현장에서 대량 실혈로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었다[3,4].

2. 법의학적 현장 검시

피해자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후 법의학적 검시를 시행하였다. 양측 하지에서 시체 경직(rigor mortis)이 관찰되었으며, 다량의 실혈로 인해 시반(livor mortis)은 뚜렷하지 않았다. 결막은 창백하였고, 안구에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경부에는 예기(sharp-force weapon)에 의한 광범위한 다발성 절창 및 자창이 관찰되었으며, 손상은 왼쪽삼각(약 1.0×4.0 cm), 왼쪽통수삼각(약 1.5 cm 및 약 1.0×3.0 cm), 왼쪽목빗근 부위(약 0.5 cm), 왼쪽장삼각(약 2.0×1.0 cm 2개소, 약 3.5×0.3 cm, 약 3.5×0.5 cm), 근육삼각 중첩 부위(약 3.0×6.0 cm, 3개소), 왼쪽덜미(약 8.0×1.5 cm) 등에 분포하였다. 특히 근육삼각 부위의 절창에서는 기관(trachea)의 완전 절단(complete transection)이 확인되었다(Fig. 2). 복부에는 명치 부위 약 3.0×1.0 cm, 배꼽 부위 약 0.5×2.0 cm, 두덩 부위 약 3.0×1.0 cm 크기의 자창이 관찰되었다. 또한 왼손 엄지손가락(두 곳, 각 약 1.0 cm)과 왼 반지손가락(약 0.5 cm)에는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절창이 확인되었다. 오른쪽 견갑골 부위에서도 예기에 의한 비교적 얇은 자창



Fig. 2. Cervical sharp-force injuries of the victim. Multiple incised and stab wounds were distributed across the left submandibular triangle (approximately 1.0×4.0 cm), left posterior cervical region (approximately 1.5 cm and 1.0×3.0 cm), left sternocleidomastoid region (approximately 0.5 cm), left supraclavicular triangle (approximately 2.0×1.0 cm at two separate sites, 3.5×0.3 cm, and 3.5×0.5 cm), the muscular triangle (three separate incised wounds measuring approximately 3.0×6.0 cm), and the left posterior neck (approximately 8.0×1.5 cm). Notably, one incised wound within the muscular triangle demonstrated complete transection of the trachea.

(약 1.0 cm, 약 2.0 cm)이 관찰되었으며, 그 외 특이 소견은 없었다.

3. 부검 소견

사망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시행하였다. 경부에서는 다발성 절창과 함께 양측 경동맥 및 경정맥의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기관과 식도는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다. 경추뼈 표면에는 예기에 의해 형성된 신상 절흔(sharp-force cut marks) 5개소가 확인되었다. 복부 자창으로 인해 간과 장간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고, 오른쪽 견갑골 부위 근육 내에서는 얇은 출혈이 관찰되었다. 그 외 부위에서는 특이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인은 경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경동맥·경정맥 손상 및 기관·식도 절단에 따른 대량 실혈사로 판단되었다.

4. 범인의 과거력 및 법원 판결

범인은 과거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본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출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기각되었고, 직업·재산 및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편집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의 병력이 있었으며, 환청과 망상 증상을 호소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 전날 등산로를 사전 답사한 후, 범행 당일 새벽 5시 20분경 등산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부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예기 손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복부에도 추가적인 자창을 가하였다. 이후 금품을 탐색하였으나 절취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범행 당일 자수하였다. 제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제2심 및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5].

고 찰

Numbeo의 국가별 범죄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세계 최상위권의 안전도를 기록했으나, 최근 범죄 발생 증가와 사회적 불안 요인 확대로 인해 범죄 지수가 상승하며 치안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범죄지수는 20위권대로 하락하여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6]. 이러한 변화는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며, 2008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사건과 같은 사례는 사회적 단절,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이 결합될 때 이상동기 범죄가 폭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7,8].

경찰청이 발간한 범죄통계 연보(201~2022)에 따르면 5년간 대한민국의 살인기수 사건은 2018년 350건, 2019년 345건, 2020년 341건, 2021년 307건, 2022년 298건으로 연평균 329건이 보고되었다. 범행 시점에서 범죄자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같은 기간 평균 21건(6.38%)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살인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연평균 44건(13.4%)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친족이나 지인 간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사용된 범행 도구 중에서는 칼이 평균 39.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된 국내 환경에서 칼이 치명적 공격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9, Table 1]. 이러한 통계는 이상동기 범죄의 핵심적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즉, 관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 적지 않게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정신이상 상태의 범죄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사용 도구는 대부분 칼이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가해자는 정신질환 이력과 사회적 고립을 배경으로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경부와 주요 혈관을 공격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사회적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치안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칼은 쉽게 구입하고 휴대할 수 있으며, 인체의 주요 장기와 혈관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살인 범죄에서 특히 위험한 도구로 평가된다. 따라서 칼 사용 범죄를 줄이기 위한 판매·휴대 규제 강화와 함께, 상시적 위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예방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에는 첫째, 경찰·지자체 기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방문 관리 및 사례관리 시스템, 둘째, 폭력·위험 행동 이력자의 위험도 평가 및 정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셋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범행 예고·공

격적 표현·모방 위험 신호 탐지 시스템, 넷째, 지역사회 기반의 이상행동 조기 경보 체계, 다섯째, 흉기 구매 이력 관리나 대량 구매 이상징후 탐지와 같은 유통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는 비관계성·비선택성 공격의 조기 징후를 파악하여 선제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 장비나 개인 안전 도구 개발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대비책은 단순 억제책을 넘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은 금전적 이득, 관계 갈등, 보복, 충동적 분쟁 등 비교적 명확한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상동기 살인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 관계가 없거나, 공격 과정이 비체계적·비목적적으로 전개되며, 범행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공격이 주로 무작위적이고 피해자 선택성이 낮아, 피해자 측에서 위협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명성이 크다. 본 사례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환청과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과 사회적 고립이 복합되어 비체계적·비목적적 공격 행동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과 부합한다.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동기 범죄의 경향 역시 본 사례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2016), 진주 아파트 흉기 난동(2019), 신림역·서현역 무작위 칼부림 사건(2023) 등은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관계성, 공격 행동의 무차별성, 정신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존재라는 공통 요소를 갖고 있다. 범행 과정 또한 목적 지향적이지 않고, 공격의 강도와 표적 부위가 불균형하고 과도하게 집중되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 동기 기반 살인과 뚜렷이 구별되며, 사회적 불안과 치안 위협을 증폭시키는 이상동기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micide offenders in Korea (2018~2022)

Year	Total cases	Mental state of offender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Weapon used
		Normal	Abnormal	Drunk	Unknown	Others	Knife
2022	298	141	15	57	85	30	101
2021	307	144	20	60	83	42	111
2020	341	156	21	72	92	42	125
2019	345	156	20	75	94	56	117
2018	350	171	28	74	77	46	113
Average	328	154	21	68	86	43	113

Values represent the number of cases or the number of offenders. Values were selectively extract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Crime Statistics (2018~2022). 'Knife' represents the sharp-force category relevant to this case.

살인의 구조적 위험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10].

이상동기 살인사건은 범행 동기와 공격 행태가 비합리적·비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손상 양상 또한 일반적 동기 기반 살인사건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법의인류학적 관점에서 일반적 살인은 금전적 이득이나 관계 갈등 등 비교적 명확한 목적에 따라 특정 부위를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상동기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비조직적 공격성과 정서적 통제 실패로 인해 표적 부위가 무작위적으로 선택되거나, 해부학적으로 치명적인 부위에 반복적이고 과도한 손상이 집중되는 양상이 보고된다. 특히 목, 얼굴, 흉부와 같은 주요 해부학적 구조는 공격성 폭발과 충동성 증가가 결합될 때 집중적으로 손상되는 특징이 있다[11]. 본 증례에서 확인된 다수의 절창 및 자창, 기관과 식도의 완전 절단, 양측 경동맥·경정맥 파열 등은 이러한 이상동기 공격의 해부학적 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부의 주요 장기와 혈관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된 점, 손상 범위가 해부학적 중요 구조를 가로지르며 넓게 분포한 점, 그리고 방어손상이 제한적으로 관찰된 점은 가해자의 비기능적·비목적적 공격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법의인류학적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손상 패턴과 공격 강도의 불균형성은 이상동기 살인을 일반적 동기 기반 살인과 구분하는 핵심적 법의학적 및 해부학적 요소이다.

가해자의 배경은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의 복합적 기저 요인을 보여준다. 그는 과거 강도살인으로 15년간 복역하였으며,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면서 정서적 통제력 저하와 공격성 증가가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이는 재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조현병, 편집증, 충동 조절 장애 등 특정 정신질환이 폭력성과 연관될 수 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곤궁이 이러한 위험성을 증폭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경생물학적 연구 또한 전두엽 기능 저하나 도파민 시스템 이상이 충동적 공격성을 촉발하는 주요 기전으로 작용함을 제시하고 있다[12,1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심리적·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이러한 공격이 발생하는 구조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작위 공격은 예측 가능성이 낮고 단시간 내 치명적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 신호의 조기 인지와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수적이다. 정신질환·사회적 고립·경제적 취약성 등은 이상동기 살인을 특징짓는 대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교정시설에서도 단순 처벌보다는 재범 위험요인의 평가와 퇴소 후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본 사례는 이상동기 살인이 구조적 취약성과 개인적 요인이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과 공격 행동·손상 패턴 간의 연관성을 다학제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의 심리학적·사회학적 분석뿐 아니라 뇌과학적·신경생물학적 기전을 포함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 집행 기관,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예방적 조치와 치안 강화를 위한 통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이상동기 살인 범죄의 법의학적 특징과 사회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며, 안전한 사회 구현과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REFERENCES

1. Choung H. Study on the crime with strange motive. *J Korean Criminol.* 2024;26:97-138.
2. Kim Y, Jo Y. Characteristics and subtype of recent crimes with abnormal motives. *J Police Sci.* 2024;24:93-121.
3. Choromanski K. Bloodstain pattern analysis in crime scenarios. Cham: Springer; 2020. p. 3-15.
4. Peschel O, Wirth I, Sachs H, Eisenmenger W. Bloodstain pattern analysis. *Forensic Sci Med Pathol.* 2011;7:257-70.
5. Supreme Court of Korea. 2017Do2188. 2017 Apr 28.
6. Numbeo. Crime rankings by country [Internet]. 2014 [cited 2023 Oct 9]. Available from: https://www.numbeo.com/crim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14.
7. Ozaki K, Watanabe A, Otake K, Irahara T, Hayashi R, Shirashi S, et al. Care of the victims of the Akihabara massacre. *J Nippon Med Sch.* 2009;76:41-2.
8. Ogihara S. Cases of indiscriminate killing and society: Toward a sociological analysis of curvatures in contemporary society. *Int J Criminol Sociol.* 2013;2:1-12.
9. National Police Agency. Crime statistics: 2018-2022.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2023.
10. Park J, Choi NM.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nonspecific motive crime. *Korean J Forensic Psychol.* 2013;4:107-24.
11. Yoon JS, Park JS, Ahn SH, Kim MJ.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4. Report No.: 13-AB-03.
12. Yoon JS, Kim MC. Understanding so-called "do-not-ask" crim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Korean J Crim Psychol.* 2013;9:147-74.
13. Yoon SY, Lee SJ. A study on classifying offenders committing indiscriminate attack. *Korean Police Stud Rev.* 2018;17:201-30.

간추림 : 이상동기 살인은 사회적·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난 비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살인사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드문 이상동기 살인 1례를 해부학적 및 법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60세 여성 피해자는 산길에서 다수의 예기 손상을 입은 상태로 반듯이 누운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혈흔 형태 분석 결과 시신의 이동 없이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표검시에서는 경부 전·측면에 집중된 절창 및 자창과 왼손의 방어손상이 관찰되었고, 부검에서는 기관과 식도의 완전 절단, 양측 경동맥 및 경정맥의 파열 등 광범위한 절단성 손상이 확인되어 사인은 경부 손상에 의한 실혈사로 판단되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가해자는 과거 강도살인으로 15년간 복역한 후 출소 4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으며, 치료받지 못한 편집형 조현병, 알코올 의존, 사회적 고립 상태가 공존하고 있었다. 본 증례는 주요 경부 구조를 침범한 예기 손상의 해부학적 및 법의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배경을 이해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연구는 심리·사회·신경생물학적 요인을 통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정책 마련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찾아보기 낱말 : 경부 예기 손상, 법의학, 사망 현장 수사, 이상동기 살인, 혈흔 형태 분석